

DJ를 청와대 · 노벨평화상으로 안내한 차량 전시 ‘눈길’

영암공용버스터미널에 1997년 대선 당시 유세차량 전시 1996년 현대자동차가 출시한 세단으로 국산 최초 방탄차

영암공용버스터미널을 방문하면 DJ를 청와대와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안내한 차량을 볼 수 있다.

영암군은 지난 10일 영암공용버스터미널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 ‘1997년 대통령 선거 유세차량 전시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배기선 김대중재단 사무총장은 이 차량을 “김대중 전 대통령을 청와대와 노벨평화상 등으로 안내한 차”라고 소개했다.

그는 “김 전 대통령의 분신과 같은 차량을 영암군이 영구히 잘 간직해 주고, 영암에서 제2의 김 대통령이 나오도록 좋은 인재를 길러달라”고 당부했다.

영암공용버스터미널에는 김 전 대통령의 얼굴과 ‘영암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기억하다’는 문구와 함께 가



로복 앞에 차량이 전시됐다. 가로백 뒤편에는 ‘내일은 젊음의 것이다’는 김 전 대통령의 말과 함께 간략한 약력이 소개돼 있다. 전시된 유세차량은 지난 1996년 현대자동차가 출시한 플래그십 세단

으로 최초 국산 방탄차량이다. 1997년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 후보의 유세 지원용으로 제작됐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기증했다. 기존 차량에 문과 바닥에는 3cm

두께 특수강판을 추가하고, 미국산 방탄유리를 적용해 개인화기 공격을 견딜 수 있게 제작, 뒷자석에는 세계 최초로 SRS 에어백도 장착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이 차량으로 전국 곳곳을 다니며 선거운동을 펼쳤으며, 대한민국의 제 15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이후 이 선거유세 차량은 이회호 여사와 아들 김홍업 전 국회의원 등을 포함 8차례 소유자가 바뀌었다.

마지막으로 차량을 소유하고 있던 김홍산 아시아태평양재단 행정실장이 영암군에 기증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김 전 대통령은 1964년 영암 출신 국회의원 남산 김준연 선생의 체포동의안 통과를 막기 위해 대한민국 최초의 필리버스터 연설을 5시간 19분 동안 펼친 인연이 있다”면서 “이 유세차량 전시를 인연으로 영암군이 김 전 대통령의 민주 · 인권 · 평화 정신을 잘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영암=김형두 기자

노관규 순천시장, 환경미화원으로 변신 청소차 타고 쓰레기 직접 수거... “시민 불편 없어야”

노관규 순천시장은 11일 추석을 앞두고 쓰레기 수거에 따른 시민 불편 해소와 환경미화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 차량에 탑승하여 생활쓰레기를 직접 수거하고 운반했다.

시는 최근 경남 양산시에서 발생한 환경미화원 청소 차량 발판 낙상 사망사고를 계기로, 지난달 22일부터 청소 차량의 발판을 전면 제거했다. 이로 인해 환경미화원이 쓰레기 수거를 위해 도보 또는 차량에 탑승하여 이동하면서 도심 주택가 쓰레기 수거 · 운반 시간이 지연됐다.

이에 시는 신속히 대책을 수립하고 전담팀 2팀을 구성하고 청소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운영 중이다. 특히 추석 연휴 기간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쓰레기 수거를 위해 오는 13일까지 청소 자원과 전담팀을 현장에 투입하고 전담팀을 4팀으로 확대 운영한다.



노 시장은 “시장, 공무원, 환경미화원은 시민을 위해 존재하며, 추석을 앞두고 시민 불편이 없어야 한다”며 “깨끗한 거리와 환경미화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빠른 시일 내 쓰레기 수거가 정상화될 예정이니, 시민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며, “시민들께서도 쓰레기를 줄이고 정해진 수거일에 맞춰 쓰레기를 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고 말했다.

/순천=조순익 기자

광양,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오는 24일까지 단계별 진행

광양시는 추석 연휴 기간 감독기관의 관리 여건 취약으로 오염물질 불법 배출이 우려됨에 따라 연휴 전부터 연휴 후까지 환경오염 행위가 우려되는 지역 · 시설에 대한 특별감시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감시활동은 오는 24일까지 실시한다. 사전홍보 및 계도, 특별감시활동 강화, 영세 · 취약 업체 기술지원 등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해 단계별로 진행할 계획이다.

14일 이전에는 중점 감시 대상 사업장에 자율점검 협조공문을 발송해 사전 계도 활동을 먼저 시행한다. 계도 이후에는 폐수배출시설이나 대규모 공사장 등 환경오염 취약 시설을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감시활동을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에는 오염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환경오염 사고 대비 상황실’을 운영하는 한편 영산강유역환경청, 전라남도 등 관계기관과의 비상 연락 체계를 유지해 환경오염 사고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김용길 환경과장은 “추석 연휴 기간 사업장에서는 환경관리에 더욱 신경 써주시길 바란다”며 “시민들은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128(휴대전화는 지역번호 + 128)로 즉시 신고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광양=조순익 기자

영광 불갑산 상사화 축제 “먹깨비와 함께 즐겨요”

영광군은 불갑산 상사화 축제와 연계하여 13일부터 공공배달앱 ‘먹깨비’로 주문하면 3000원 즉시 할인 쿠폰을 지급하는 특별 이벤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이벤트는 먹깨비에서 1만 5000원 이상 주문하는 선착순 200명에게 3000원 할인쿠폰을 지급하며, 현재 전라남도에서 추진하는 민생경제 회복 할인 이벤트의 5000원 할인쿠폰과 중복 사용이 가능하여 총 800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 사람당 1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가맹점에서 발행한 자체 할인쿠폰과 함께 사용할 경우 추가할인도 가능하다.

먹깨비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으며, 충전 시 10%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영광사랑카드도 결제하면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불갑산상사화축제가 건국 70주년 특별 이벤트인 만큼 먹깨비로 주문해서 할인 쿠폰도 받고,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착한 소비에도 많이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고 말했다.

/영광=서준민 기자

강진 전통막걸리, MZ세대 입맛 사로잡다

병영 설성막걸리 · 도암 뽕잎막걸리 인기 암반수 사용 텃밭하지 않고 깔끔한 맛 비결

최근 ‘MZ세대’ 사이에서 전통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강진 병영주조장(대표 김영희), 도암주조장(대표 박병현)에서 생산한 막걸리가 전통주의 명성을 이어오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11일 강진군에 따르면 막걸리에는 다른 술에 비해 단백질이 풍부하며 저 알코올 함량과 낮은 당도가 특징으로 꼽힌다.

옛 붉은 벽돌로 쌓은 주조장 굴뚝이 60년 이상 한자리를 지키고 있는 병영주조장은 김영희 대표가 산천식물명인(제61호 김견식의 대를 이어 운영)을 하고 있다.

병영 설성막걸리는 국내 최초로 막

걸리 분야 유기농식품 인증을 받았으며, 강진군 병영면 한들평야에서 생산된 쌀과 지하 200m에서 끌어올린 암반수를 사용해 텃밭하지 않고 묵 넘김이 부드럽고 깔끔한 맛이 일품이다.

도암주조장에서 생산되는 뽕잎막걸리는 뽕나무의 뽕잎을 건조 후 250~300°C에서 20분 가량 볶아서 녹차와 같은 방법으로 8일간 발효시켜 종전의 텃밭한 맛을 배제, 맛이 시원하고 뽕잎 향이 그윽해 부드러움을 느낄 수 있다.

강진군 도암면 간척지에서 생산된 친환경 쌀과 직접 재배한 뽕잎 및 지하 200m에서 끌어올린 깨끗한 물 등



좋은 재료를 사용해 전통주 방법으로 막걸리를 생산하고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청정 강진의 쌀과 물로 정성껏 빚어 맛을 내는 강진산 막걸리는 텃밭이 깔끔해 젊은 층에도 인기를 끌고 있다”며 “강진산 막걸리가 지역 특산품을 넘어 전국적으로 사랑받는 막걸리 문화 자제를 전파하는 전통주 공급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진=한홍수 기자

진도-(주)직큐, 농수특산물 판촉확대 업무협약 체결

농식품 유통 디지털 전환 지원 · 판매 활성화 등 협력



진도군이 최근 (주)직큐와 진도군에서 생산되는 농수특산물의 브랜드 인지도 향상과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김희수 진도군수를 비롯해 이용원 직큐 대표, 손수영 애즈위메이크 대표 등 관계 임직원들이 참여한 진도군 농수특산물 유통 디지털 전환과 판매 활성화, 신

규 농식품 개발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애즈위메이크는 동네 마트와 마트 인근 거주민을 연결하여 온라인 식품 배송 서비스 제공 중인 ‘큐마켓’을 운영하는 신생 정업 기업(스타트업)으로 직큐는 큐마켓의 유통을 담당하는 애즈위메이크의 자회사이다.

큐마켓은 오프라인 마트와 소비자들을 이어주고, 도심에 있는 식자재 마트를 배송 거점으로 활용해 주문 후 집 앞까지 당일 배달하는 오프라인 연계(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를 제공한다. 큐마켓을 이용하는 회원 수는 약 30만 명, 제휴 식자재마트는 800개소이며 거래액은 약 월 40만 건에 170억 원이다.

/진도=백재영 기자

해남군 “추석 연휴에는 해남서 밥먹자”

‘식구랑게’ 이벤트... 일반음식점 이용 시 쿠폰 지급

해남군은 미식관광 활성화와 지역 음식점의 경기활력을 위해 ‘너와 나는 식구(食구)랑게’ 이벤트를 이번 달부터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벤트는 식구주간(19일이 포함된 1주) 관내 일반음식점을 이용하는 손님, 방문객 누구나 가능하다. 9월의 식구주일은 추석명절이 포함된 9월 16일부터 22일까지며, 응모 기간은 9월 16일부터 27일까지이다. 응모는 1인당 1건만 인정된다.

군 관계자는 “식구주간 해남을 찾는 모든 분들이 식구의 의미를 되새기며 즐거운 시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가 방법은 음식점 이용 영수증에 해남군 공식 SNS채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인증하고, 이용 후기를 작성하면 된다.

식구주간 관내 일반음식점을 이용한 관광객, 방문객 누구나 가능하다. 9월의 식구주일은 추석명절이 포함된 9월 16일부터 22일까지며, 응모 기간은 9월 16일부터 27일까지이다. 응모는 1인당 1건만 인정된다.

군 관계자는 “식구주간 해남을 찾는 모든 분들이 식구의 의미를 되새기며 즐거운 시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남=김동주 기자

함평 실내수영장 10월 준공 ‘순항’

공정률 97%... 지하 1층 · 지상 2층 규모

함평군은 대동면 향교리 일원에 조성 중인 함평 실내수영장을 10월 준공해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함평 실내수영장은 지하 1층, 지상 2층에 연면적 2624㎡ 규모로 조성했으며, 성인용 풀 6레인과 유아용 풀 등을 갖추고 있다.

총사업비 137억원을 투입했고, 2년 간의 공사 기간이 소요됐다.

현재 안전관리요원과 환경정비원

등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완료했으며, 10월 준공 이후 올해 말까지 시범 운영을 할 계획이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함평 실내수영장 개관으로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여가 선용 기회 확대 등 정주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실내수영장 건립 사업이 많은 주민의 숙원이었던 만큼 안전시설 공사 등을 완벽하게 마무리 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김홍희 기자

나주, 추석 연휴 ‘전통놀이 한마당’ 개최

웃놀이 · 제기차기 · 전통의상 입어보기 체험 등



나주시는 우리 고유의 민속명절인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나주를 찾는 시민, 귀성객들을 위해 다양한 전통놀이 체험 프로그램을 금성관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모든 세대들이 재밌고 쉽게 즐길 수 있는 윷놀이, 제기차기 등 한국 전통놀이부터 스웨덴, 핀란드 등 다양한 세계 전통놀이(쿠브, 몰기)를 체험할 수 있고, 한국 전통의상무에

복도 입어보는 체험을 할 수 있다. 행사는 금성관 서이현 앞에서 진행되며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누구나 자유롭게 전통 놀이를 체험할 수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민족 대명절 추석 연휴 기간에 가족, 친지들과 다양한 전통놀이를 체험을 즐기면서 보람달처럼 밝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나주=신동혁 기자